

“5000만원까지는 안전” 저축은행에 수신 7.4조 몰렸다

부보예금 전년비 14.6% 증가
퇴직연금 운용대상 편입 효과

저축은행 건전성관리 강화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 기인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부보예금(예금자보호 한도 대상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덧씌워진 ‘낙인효과’가 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58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4.6%) 증가했다.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와 더불어 저축은행 예금이 퇴직연금

〈저축은행의 총부채 대비 부보예금 비중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7.12월말	'18.3월말	'18.6월말	'18.9월말	'18.12월말
총부채	53	54.6	56.7	58.8	61.7
부보예금	50.6	52.2	54	55.9	58
5천만원 순초과예금	5.4	5.7	6	6.5	7
부보예금/총부채	95.50%	95.60%	95.10%	94.90%	94.00%

/자료=예금보험공사

상품 운용 대상으로 편입된 데 따른 효과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안정적인 수익모델 전환과 함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신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이 고위험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싱(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다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인 신용대출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꿨다”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한 만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

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지난 2017년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증가함에 따라 비보호예금(예금자 1인당 예금보험 한도인 5000만원 초과분의 합계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경우 늘어난 비보호예금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보호예금의 43% 정도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고객이 비보호 예금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으나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올라 건전성이 떨어졌지만 규모가 작은 만큼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증가한 것은 오히려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비보호예금의 증가세 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우리금융, 조직개편... 혁신성장·핀테크 강화

‘디지털 컨트롤타워’ 2개 부서 신설

우리금융지주가 혁신성과 핀테크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우리금융지주는 혁신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금융부와 핀테크 혁신을 총괄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효율적인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략기획단 산하에 미래금융부를 신설, 혁신금융의 추진 전략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혁신금융 지원 관련 우리은행 등 그룹 내 사업을 총괄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래금융부는 그룹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사업 진출 등 전략사업 육성은 물론, 자회사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ICT기획단내에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해 핀테크 생태계를 선도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룹 내 핀테크 업무를 총괄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혁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우리은행 본점.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서 디지털부문 강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그룹 디지털 업무도 총괄하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래금융부와 디지털혁신부는 그룹의 혁신금융과 디지털 사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그룹사 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신한카드, 디지털 신용평가로 글로벌 공략

카자흐스탄·베트남 등 현지법인에 디지털 신용평가 시스템 최초 도입

신한카드가 글로벌 현지시장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한다.

신한카드는 디지털 기술 수용이 빠르지만 CB(Credit Bureau) 인프라가 낙후된 이머징 마켓의 특성을 감안해 업계 최초로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신용평가란 금융거래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모바일·인성평가·거래정보·웹로그 등 비금융 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이다. 금융기관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이머징 마켓의 경우 보편화돼 있지 않고, 관리 정보의 질도 낮아 대면·수기 심사에 의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들 이머징 마켓에 대해 국가별 환경에 맞는 신용도 판단지표 개발



신한카드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오는 6월 말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신한파이낸스에 도입한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캘린더 기능 사용여부, 휴대폰 사양, 블루투스를 통한 자동차 연결이력 등 휴대폰 내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 안정적인 생활패턴 여부를 활용해 신용도를 판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혁신금융사업의 일환인 ‘지정대리인’ 사업자 선정과 연계, 외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디지털 신용평가 모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어 신용성향 평가모형을 구축한다. 이는 KCB와 서울대 심리학자가 공동 개발한 설문기반의 신용평가 모형으로, 자기 통제와 돈에 대한 태

도, 위조진술 여부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신용도를 예측하는 평가방법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초 KCB와 신용성향 평가모형에 대한 글로벌화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베트남 푸르덴셜소비자금융(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PVFC)에서 최근 사명이 변경된 SVFC(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 현지법인의 심사 시스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1위 SNS인 잘로(ZALO)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심사 프로세스 구축 등도 모색해 나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와 디지털 경쟁력을 결합해 해외법인이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리스크 관리력 고도화 및 현지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 글로벌 해외법인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KB국민은행, 5000억 규모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국내 은행권 최초... 대출자금 활용

KB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다.

발행 금액은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에 13.3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1.90%(AAA 은행채 민평 대비 -3.4bp), 7년물은 국고채 7년에 11.4bp를 가산한 1.96%(AAA 은행채 민평 대비 -6.3bp)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

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자금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했으며, 조달 자금은 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연금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등 업계 최초로 발행된 KB국민은행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커버드본드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과 투자자들의 중장기 물 수요로 인해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1.5% 올라... 올 1월 이어 두번째

삼성화재가 다음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1.5% 가량 인상한다. 올 1월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6월 첫째 주 1.5%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이 적정하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의견을 받았다.

이번 보험료 인상의 근거는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이다. 보험사가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삼성화재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오르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이달 1일 시행됐다. 또 개정 약관은 사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시세 하락분의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했다.

삼성화재가 다음달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타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에 이어 상반기에만 보험료를 두 차례 올리는 셈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에 이미 3~4% 인상한 바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상승했기에 불가항력적”이라며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올해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익 악화를 온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 판단해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